

순정이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의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 20b)

삼위일체 대축일(청소년 주일)
제 1독서 : 신명 4,32-34,39-40
제 2독서 : 로마 8,14-17
복 음 : 마태 28,16-20

강론

소리

제9차 청소년주일

겉만 낳을 것인가?

박찬길 신부 / 교육국장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이며, 오월의 마지막 주일이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오월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성모신심을 찬미하는 ‘성모의 밤’ 행사도 각 본당에서 한창이다.

한국교회는 몇 해 전부터 오월 마지막 주일을 ‘청소년주일’로 정하여 미래교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청소년주일’은 ‘주의 수난 성지주일’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성주간이 시작하는 ‘주의 수난 성지주일’ 보다, 사회에서 ‘가정의 달’로 지내고 있는 오월 마지막 주일을 ‘청소년주일’로 정하여 젊은이들에게 교회의 사명과 신앙인의 소명을 일깨우는 다채로운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올해로 우리는 제9차 청소년주일을 맞이하게 되며, 우리 교구에서는 두 번째로 청소년주일 행사를 갖게 된다. 특별히 올 교구 청소년주일 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를 치르게 된다. 그 이유는 ‘가톨릭 교육재단 협의회’ 산하 전국 남녀 고등학생 200여 명이 이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행사 전날에 나바위 교육관에 모여 학교자랑과 장기자랑을 하며 즐거운 전야제 한마당을 펼치게 된다. 다음 날 윤호관에서 우리 교구 각 본당 학생들과 함께 오늘날 청소년들이 교회와 사회 안에서 가지게 되는 고민과 갈등을 서로 나누며 각자의 소명을 깨닫는 본행사를 갖게 된다.

교황께서는 올 청소년 주일과 내년 1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소년 대회를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하셨다. 이 담화문에서 교황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요한 복음 20장 21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맡겨진 선교사명에 전세계 젊은이들이 깊이 참여하도록 호소하고 있다.

젊은이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새로와 지고 더욱 풍요로와 질 것이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

엿그제 또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살인사건의 용의자들이서 어머니뻘이나 되는 이를 납치해서 상처를 입히며 인질극을 벌린 것이다. 이 젊은이들은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별로 부끄러움이나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기색이었다. 오히려 환각제를 요구하며 ‘산다는 게 다 그런 것이 아니냐’는 투였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자면 아찔하기만 하다.

오늘은 마침 교회가 정한 ‘청소년주일’이다. 우리는 이 날이 갖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살필 수 있다. 어른이며 부모인 입장에서 살펴 보자.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어떻게 기르고 가르쳤는가? 밥이나 먹고 옷이나 입힌 것은 아닌가! 세상을 타하며, 이기적인 심성으로 텅 빈 자식의 가슴은 걱정도 하지 않고 머리만 채워 주려고 애쓴 것은 아닌가!

요즘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이유를 부모에게서, 특히 어머니에게서 찾는 시각이 있다. 부모가 자식을 육체적으로만 낳고 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지금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뒷바라지해 준 때도 일찌기 없었다. 그런데도 세상은 더욱 거칠기만 하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낳고 기르는 일에는 소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두 번 낳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멋대로 살던 아우구스티노를 성인이 되게 한 성녀 모니카처럼 말이다. 卍

순정이 산책



우리 어머니

제9차, 10차 세계 청소년주일 교황 담화문(요약)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21)

친애하는 청소년 여러분!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요한 20,19) 이 말씀은 주께서 수난당하신 후 집에 질려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뜻 깊은 인사입니다.

저도 이러한 강렬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제 9차 10차 세계 청소년주일(1994년과 1995년 주의 수난 성지주일에 거행될 것이며, 전세계 젊은이들이 교황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국제 대회가 1995년 1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열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묵상과 기도의 여정을 밟아 온 지난 대회들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뵈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 모든 젊은이들은 우리 삶의 중심이시자 우리 신앙의 뿌리이시며, 우리 희망의 이유이자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명과 선교활동은 우리 신앙의 핵심인 파스카 신비로부터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요한 20,19) 문을 닫아 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만남입니다. 주님의 비극적 수난과 영광스런 부활 사건 이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뵈게 된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간의 삶에 의미를 주고 인간 정신을 참다운 자유의 지평으로 열어주면서 그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이 개인적 기쁨의 순간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으로 힘을 얻어 두려움이나 불안을 떨쳐버리고 생명의 문을 활짝 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신(요한 14,6 참조) 말씀을 받아들여 전세계에 그 말씀을 용감하게 선포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분의 복음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 전해진 신앙의 유산을 충실히 지키고 전달하는 교회는 새로운 세대와 솔직하고 개방된 대화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의 원천에 도달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벗들이여, 그리스도의 매력에 이끌려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구세주께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주저 없이 선포한 제자들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성령에 힘입어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쇠태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생활과 일의 증거를 통해서 화해와 평화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세상에, 특히 여러분 또래의 젊은이들 가운데 파견되었습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화해는 하느님 아들의 제자로서 자신의 신원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운명이

며 인류가족 전체의 운명입니다. 그리스도교 제3천년대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이 때에 신뢰할 수 있는 증인과 일관성 있는 메시지 선포자를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 희망을 전달하고 평화를 위해 일할 임무가 특별히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진리와 행복에 목말라 하고 비록 무의식적이기는 하나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 동시대인들의 마음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저의 아버지다운 따뜻한 축복이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향토회관

회갑, 결혼피로연 등
단체손님 환영
안춘자(소피아)
성락프라자 지하
(북전주 세무서 앞)
☎ 75-7666

엄마사랑 서부점

이유식·당뇨식·건강식 42종 우리
농산물로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박종환(유스띠노)
이미연(마리아)
효자동 성당 앞
☎ 225-4350

서울방사선과 의원

(종합건강진단센터)
종합검진, 유방촬영
특수촬영, 병리검사
박인숙(아나다시아)
금암본수대 로타리
☎ 78-1313

주방요리기구 전문점 비전사

카이젤 인덕션렌지, 카터기,
테크노세라믹, 녹즙기, 마마께주부
최학만(바오로)
송계순(소화 데레사)
☎ (0652)254-7928~9
FAX (0652)254-2931

잡간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6. 자식에게 효도한다?

“자식에게 효도한다.” 무슨 뜻인지 같은 소리인가? 부모에게가 아니라 자식에게 효도하다니 어디 말이나 될 법한가? 오늘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 가운데 노인 공경 문제를 빚대어 표현한 말이다.

사실 노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크나큰 관심 거리가 아닐 수 없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인생의 한 과정, 바로 내일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노인 부양의 핵심은 그 자녀들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한 울타리 안에서 동거하는 대가족 제도의 미풍 양속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사이 급속도로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시대가 바뀌어 음에 따라 노인 공경과 부양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녀들의 요구는 꿈쩍이 들어 주면서 노부모들에게는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자식에게 효도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가 된 오늘날이다. 며느리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 도시의 공원이나 고궁에서 온종일을 지내면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 가족들로부터 존경과 보호를 받기는커녕 무관심 속에서 소외당한 채 여생을 외롭고 우울하게 지내는 노인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러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 복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나 아직 그 현황은 미미할 따름이다.

노인들이 결코 질스러운 존재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지상 최고의 목자이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계서는 언젠가, 노년을 웅대한 교황곡의 마지막 악장에 비유하시며, 그분들의 지혜와 덕을 존경하며 자녀들이 효도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적이 있다. 노인들은 우리의 부모들인 만큼 우리가 잘 모셔야 하고 또한 미래의 우리들이기에 지금보다 더욱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출애 20, 12)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제공

교구 소식

- 1. 가톨릭 문우회 : 6월4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2. 하나회 미사 : 5월29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별관
- 3. 가톨릭 약사회 피정 : 6월8일(수) 오전10시30분 치명자산 성당, 강사-범석규 신부
- 4. 휘플라레 모임 : 6월5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대상-국교~일반인
- 5. 푸른 군대 피정 : 6월2일(목) 오전10시 덕진 성당

- **성소모임** 성바오로말수도회 : 6월5일(일) 오후2시 중앙 성당 강당 252-3398
서울성가소비녀회 : 수시로 성소 상담(0652)223-382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맑은 물을 위한 가정생활 지침(5)

야외에 놀러 갈 때 적당한 양의 음식 가져가기와 남은 음식 바르게 처리하고 돌아옵니다.

요심이 (1083) 김병오



주교관 주방직원 구할

1. 지원자격: 영세한지 3년이상된 50세미만 여성 2.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연락처 명기) ·세례증명서 ·본당주임신부추천서 각1통씩 3. 서류접수 및 마감: 1994. 6. 4 (토) 4. 서류접수처: 전주교구청 사무처(85-0041) 5. 면접일자는 서류전형후 개별통보함

10만 회원들과 기념

· 우리밀제품 전품목 회원에게는 20kg까지 자유판매 5월25일~6월30일까지 · 무농약 마른고추판매 1근 5,000원 ☎231-6387, 85-4205 사단법인 우리밀 살리기운동 전북협의회 대표 권이복 신부

초남리에서 치명자산까지

이 책은 유행병의 생애와 사상, 유 요한과 이 무갈다 동정부부의 삶과 영성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의 초석을 놓은 초기 전주교구 순교자들의 삶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다. · 가격: 2,000원 · 전주교 구구청 홍보국 (0652)85-0041

제주 보리빵

특약점모집(성당 신심단체 환영) 100% 무방부제, 무가당제품 당노, 비만, 미용건강식 **문재원(모니카)** ☎(0652)222-9787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관통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풍소)** ☎88-7717~8

새롭게 시작합니다 **관인 정석속셈학원**

· 국교부: 전과목(토요일-영어, 한자, 비디오회화) · 중등부: 영어, 수학(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상담문의 **박대길(벨라도) 구외숙(사라)** **우아동 양우신협 근처** ☎75-1282

생수 공급합니다 **지리산 보천광천수**

☎ 85-4205 231-6387 전주교구 가톨릭농민회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삼위 일체 대축일(청소년 주일)
 - ◎ 주일미사에 빠짐없이 참석합시다!
 - 1. 전례 봉하자 교육: 오늘, 장엄미사 후
 - 2. 첫영성체 교리 안내: 31일부터~7월8일까지
(매주 화, 수, 목, 금요일) 후 4시30분
 - 3. 영세자 연담: 6월2일(목), 6월4일(토)
후 3시, 저녁미사 후
 - 4. 영세자 집중교리: 6월7일~10일 후 3시, 저녁미사 후
 - 5. 견진교리: 14~17일, 21~24일 후 3시 저녁미사 후
중·고생-5월21일, 19일-후 3시, 18일-저녁미사 후
 - 6. 성시간: 2일 저녁미사 후
 - 7. 사목회 상임: 3일 저녁미사 후
 - 8. 병자 봉성체: 3일 오전중 사무실에 신청
 - 9. 모임: ①반회장(2일 전 10시30분)
②울뜨레아(5일 장엄미사 후)
 - 10. 견진성사를 받으실 분은 "견진 교리서" 책을 구입하세요.
1권-1000원, 사무실
 - 11. 다음주일(5일)은 "교부금 및 성소후원금 납부의 날"입니다.
 - 12. 금주 청소: 중노20, 21번
차주 청소: 중노23, 24번
- ☐ 지난주 봉헌금: 1,045,310원 ☐ 교무금: 1,139,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오늘은 삼위 일체 대축일! (청소년 주일)
 - 1. 첫영성체: ①교리 일시-6월7일(화)~7월8일(금), 화, 수, 목,
금 오후 5시
②대상: 국민학교 3학년 이상 남,녀(부모님이 신자인 어린이)
③교재대: 1천2백원
④첫영성체일: 7월9일(토) 오후 4시미사
⑤첫날 모임: 6월7일(화)에는 부모님 중 한 분은 꼭 참석바람
※ 신청은 교재대금과 함께 주일학교 교사에게 하시기 바람.
 - 2. 반장회: 5월29일(오늘) 공식미사 후
 - 3. 자모회: 6월1일(수) 오전 10시30분
 - 4. 꾸리아: 6월5일(다음주일) 오후 2시
 - 5. 성전 보수 헌금 신입하신 분(지난주): 이명 30만원, 양현술, 박주원, 박수복, 안희운 4명 각 20만원, 이복남, 김진배, 김효전, 김길자, 한경남, 오복순, 김영숙 7명 각 10만원, 최복순, 임화순, 전덕순 3명 각 5만원, 한삼순 3만원, 배복록 1만원, 지난주 신입액: 1백9십9만원, 5월22일 현재 2백4십 세대 신입하였습니다.
※ 헌금 신청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모두 함께 참여합시다.
- ☐ 지난주 봉헌금: 904,550원 ☐ 교무금: 1,031,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 1. 청소년 주일 행사: 오늘 오전 9시30분 윤호관(중·고생)
 - 2. 성체강복: 2일 저녁미사 후
 - 3. 자모회: 2일 오전 10시
 - 4. 첫영성체자 첫 고백: 3일(금) 오후 5시
 - 5. 첫영성체: 5일 공식미사
 - 6. 대건회: 5일 공식미사 후
 - 7. 사목회: 5일 저녁미사 후
 - 8. 최 수녀님 피정: 6일~17일(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9. 반주자 공모: 미사 때 반주하실 분을 찾습니다.
(접수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10. 금주 전례: 해설-유복규 씨
독서-신재근 씨 부부
봉헌-조옥매 씨 가족
 - 11. 차주 전례: 해설-유두석 씨
독서-유달수 씨 부부
 - 12. 성당 청소: 4일-천사의 모후Pr, 사도의 모후Pr
- ☐ 지난주 봉헌금: 568,190원 ☐ 교무금: 1,414,1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 오늘은 삼위 일체 대축일입니다.
 - 1. 금주: ①청소년 주일 행사(전 9시30분, 윤호관)
②혼인강좌(전 9시30분 가톨릭센터)
③차량 축복식(공식미사 후)
 - 2. 성모의 밤 행사: 31일(화) 오후 7시30분
 - 3. 성가정회: 6월 1일 오전 11시
 - 4. 빼에다회: 6월 1일 오전 11시
 - 5. 성체 강복 및 조배: 2일(목) 오전 10시
 - 6. 성모성심회: 2일 오후 3시
 - 7. 병자 봉성체: 3일 오후 2시
 - 8. 차주: ①울뜨레아- 공식미사 후
②제측극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③요새회-오후 6시
- ☐ 지난주 봉헌금: 2,031,33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
 - 1. 본당발전을 위한 헌금: 오늘 모든 미사중.
 - 2. 다음주일은 교부금 및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 3. 모임: ①성모회- 공식미사 후
②성체강복-2일(목)
③사목회-4일(토) 저녁
④꾸리아, 요새회-다음주일
 - 4. 축! 혼인: 신랑-장진수(아오스텝) 신부-박은영(아가다)
4일(토) 오후 1시 전동 성당
 - 5. 감사: 성모의 밤 행사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 6. 금주 청소: 구세주의 모친Pr
 - 7. 차주 청소: 신비로운 장미Pr
 - 8. 금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남현준 ②주영례
봉헌-황옥섭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춘봉, 독서①양주태 ②이석남
봉헌-김성수 씨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371,900원 ☐ 교무금: 350,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삼근

- 1. 성시간 성체 강복: 6월2일 저녁 7시30분
 - 2. 건축위원회 회의: 6월3일 저녁 8시 장소-사제관
 - 3. 어린이 첫 고백성사(21일 세례받은 어린이): 4일 후 2시
 - 4. 반기도회 순회: 31일부터 9구역, 10구역 반별로 기도회 요일,
시간을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5. M·E 나눔 모임: 31일 저녁 8시 회비와 필기도구 지참
 - 6. 유아세례: 4일 후 3시 미리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바람
 - 7. 김 로마나 수녀님 휴가: 6월6일까지
 - 8. 즐거움의 원천Pr 400차 기념: 축하연 29일 12시 양생 공소
 - 9. 전례담당 차례: 주일과 평일 자기의 책임을 완수바람
 - 10. 건축 헌금 신청: 신임 어부와 남부상황을 확인바람
 - 11. 회의: 부녀회-1일 어머니미사 후
꾸리아-다음주일 오후 2시30분
한빛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 ※ 바자회 식권 대금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으신 분과 구역은 바로 완납하시어 정산 완결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봉헌금: 1,302,910원 ☐ 교무금: 1,701,000원